

농업관측정보

축산관측

□ 한우 : 공급량 증가로 3~5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약세 전망

▶ 3월 사육 마리수 302만 마리, 6월은 전년보다 감소한 308~310만 마리 전망

- 도축 증가로 3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 12월 306만 마리보다 감소하나 전년 동월보다는 2.7% 증가한 302만 마리로 예상
- 암소 감축과 전년보다 낮은 송아지 생산 잠재력 영향으로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월 311만 마리보다 다소 감소한 308~310만 마리로 전망

▶ 도축 마리수와 수입량 증가로 3~5월 쇠고기 공급량은 전년보다 증가 예상

- 암소 감축 정도에 따라 3~5월 도축 마리수는 전년(19만5천 마리)보다 13.5~28.3% 증가한 22만 1천~24만 1천 마리로 전망
- 3~5월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에서 BSE가 발생했던 전년 동기(5만9천 톤)보다 4.9% 증가한 6만2천톤으로 예상

▶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3~5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 전망

-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하여 3~5월 한우지육 도매가격은 kg당 전년 14,339원보다 낮은 12,000~13,000원(생체 431~467만원, 1등급 600kg 기준)으로 전망
- 소비축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망치보다 낮은 11,000원대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.

□ 돼지 : 3월 지육가격은 3,200~3,400원/kg (탕박 기준) 전망

▶ 2013년 3월 돼지사육 마리수는 970~980만 마리로 감소세 지속 전망

- 2013년 3월 사육 마리수는 돼지가격 약세에

의한 생산의욕 저하로 전년 12월보다 2% 내외 감소한 970~980만 마리 추정

• 6월 사육 마리수는 3월보다 소폭 감소한 960~970만 마리 전망

▶ 도축 대기물량 많아 3~8월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7% 증가 전망

- 3~8월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17%, 평년 동기보다 21% 증가 전망
-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1%, 평년 동기보다 21% 감소 전망
-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3%, 평년 동기보다 11% 많을 전망

▶ 공급 과잉으로 3월 지육가격은 3,200~3,400원/kg(탕박 기준), 이후 6월까지 약상승세

- 3월 지육가격은 급식재개로 전월보다 상승하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낮은 3,200~3,400원/kg전망
- 4~5월 가격은 3,300~3,700원/kg의 약상승세를 보이고, 6월은 전년 여름철 수태율 저하에 따른 계절적 출하 감소로 전월보다 상승한 3,800~4,000원/kg 전망
- 7~8월 가격은 6월보다 다소 낮은 3,500~3,800원/kg 전망

□ 육계 : 3월 육계 산지가격 1,900~2,100원/kg 전망

▶ 3월 육계 사육 마리수 전년보다 2.5% 증가한 7,113만 마리 전망

- 3월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8.9% 증가한 694만 마리 추정
- 종계 사육 마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흑한으로 종계 생산성이 하락하여, 2월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.8% 증가한 6,316만 마리 추정

▶ 3월 닭고기 공급량 전년 대비 5.8% 증가 전망

-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3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보다 3.3% 증가 전망
- 3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 대비 4.2% 증가한

11,293톤 전망

- 2월 3일 기준 닭고기 비축물량은 전년 대비 27.6% 증가

▶ 3월 육계 산지가격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나 수요는 전년 수준으로 예상되어 3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5~15% 하락한 1,900~2,100원/kg 전망

▶ 4~5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종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7월까지 병아리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
- 4~5월 닭고기 공급은 증가, 수요는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어 4월 산지가격은 1,500~1,700원/kg, 5월은 1,400~1,600원/kg으로 전년보다 하락 전망

□ 산란계 : 3~5월 계란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▶ 산란계 사육 마리수 증가 전망

- 2013년 1월 종란입란 증지로 3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에 비해 1.4% 감소한 6,234만 마리 추정
- 3~5월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보다 월평균 3.1% 낮은 수준
-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
- 산란용 닭 마리수는 증가하고 산란 노계 도태는 지연되어 5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6,456만 마리 전망

▶ 산란용 닭 마리수 증가와 산란율 향상으로 3~5월 계란 생산량 증가 전망

- 계란 생산 가담 신계군 증가와 노계 도태 지연으로 3~5월 산란용 닭 마리수는 전년보다 4.8%~11.8% 증가 전망
- 3~5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평균 9.9% 증가 전망

▶ 3~5월계란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

- 3~4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

7.0~20.3% 하락한 1,000~1,100원(특란 10개) 전망

- 5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2.4~21.1% 하락한 900~1,000원(특란 10개) 전망

□ 오리 : 3~5월 오리 산지가격 5,700~6,200원 전망

▶ 2012년 12월 종오리 사육 마리수 전년 대비 19.4% 감소

- 전반적인 가격 약세로 종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19.4% 감소한 123만 마리
- 오리 총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12.4% 감소한 1,116만 마리

▶ 2013년 1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대비 2.1% 증가

- 1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2.1% 증가한 53,145 톤
- 육용오리 배합사료는 전년보다 6.4% 증가, 산란오리용은 26.4% 감소 → 2월 도입 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, 3월 중순부터는 감소 예상

▶ 3~5월 오리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

- 종오리 사육규모 감소로 3~5월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3.0% 감소한 3만 4천 톤, 오리고기 수입량은 전년 수준인 992톤 전망
- 오리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22.4% 감소한 3만 5천 톤으로 전망

▶ 3~5월 오리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

- 공급량 감소로 3~5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8.6~18.1% 상승한 5,700~6,200원/3kg 전망

채소관측

□ 엽근채소 : 가격 겨울철 한파로 강세, 봄작형 출하 이후 하락세 전망

▶ 배추·양배추·당근 가격은 높고, 무·감자는

농업관측정보

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

- 겨울배추 저장량이 적어 3월 도매가격은 강세이나, 4월 상·중순 이후 시설봄배추가 출하되면서 하락세 전망
- 무 3~4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5% 내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평년 수준 전망
- 당근 3월 이후 도매가격은 하락세, 시설봄당근 주출하시기인 5월 중순 이후 평년 수준 전망
- 양배추 3월 이후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높으나 전월대비 하락세
- 감자 3월 이후 수미·대지 도매가격 모두 평년보다 낮을 전망

▶ 봄작형 재배의향은 작년보다 증가, 고랭지는 작년 수준 또는 감소 추세

-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% 증가하나, 고랭지배추는 6% 감소
-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7% 감소하나 고랭지무는 작년 수준
-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5% 증가하나 고랭지당근은 작년 수준
-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3% 증가하나, 고랭지양배추는 6% 감소
-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3% 증가, 고랭지감자는 작년 수준

□ 양념채소

▶ 3월 양념채소 가격 전월과 비슷하거나 약보합

- 2012년산 건고추와 마늘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각각 10%, 20% 많고, 양파는 38% 적음
- 건고추와 마늘은 민간수입량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가격은 보합 또는 약보합 전망
- 양파는 국내산 재고는 적으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 대비 약보합 전망
- 대파는 기상 여건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수입량도 증가하여 전월 대비 약세 전망

▶ 2013년산 마늘·대파 재배면적 증가, 건고추·양파 감소

- 전년 농가수취가격이 높았던 마늘의 재배면적은 증가, 양파는 타작목 전환으로 감소
- 겨울대파 출하지연으로 월동대파의 출하면적 증가, 여름대파 재배 의향도 전년 대비 증가
- 전년 농가수취가격이 하락했던 건고추 재배의향은 감소
- 초겨울 한파로 마늘·양파·대파의 생육은 부진하나, 2월 기상 여건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작황 호전

과채관측

□ 2월 기상 호조로 3월 중순 이후 가격 하락세 전망

▶ 1~2월 과채류 가격 평년 대비 강세 지속

- 일조량 부족과 저온의 영향으로 과채류 출하량 감소
- 특히 완숙토마토, 오이, 청양풋고추의 가격이 강세

▶ 3월 상순까지는 전월 하순 가격 수준 유지, 중순 이후 하락전망

- 2월 기상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3월 작황은 작년보다 좋아질 전망
- 3월 출하량 늘면서 대부분의 과채류 가격이 평년 수준의 안정세 전망

▶ 4월 과채류 정식면적 작년 대비 감소 전망

- 3월 정식은 애호박, 수박, 일반 풋고추 중심으로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
- 4월 정식은 취청오이, 청양풋고추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
- 일반토마토의 경우 하우스 피해에 따른 복구지연으로 4월 정식면적 감소
- 수박은 정식시기를 전월로 앞당기면서 4월 정식면적 감소 ㉞